

글 | 오양순(서울셀렉션 저작권 팀장)

콘텐츠 세계화 노력과 장기적 투자가 빛은 저작권 수출

봄자락에 닿을 듯 말 듯한 겨울의 지루함처럼 한국의 출판계는 기나긴 경기불황에 잔뜩 움츠러든 채 한없이 늘어져 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봄날을 알리는 아지랑이처럼 우리를 희망에 들뜨게 했던 좋은 소식이 있었다. 바로 영화제로 치자면 베니스영화제에 해당하는 제41회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국내 출판사가 라가치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픽션과는 픽션에서 각각 우수상을 탔으니 겹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은 한류 열풍을 타고서 중국어권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의 저작권수출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국내도서의 저작권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을 보면 단순히 감정적 기대감으로 그치게 될 현상만은 아닌 듯하다.

●
굳이 경기침체를 들먹거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출판업계는 낡은 유통구조나 영세한 자본과 같은 내부적 문제점 때문에 조금의 매서운 바람에도 쉽게 위축되고 마는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도서의 저작권 수출이 확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아동도서가 상대적으로 시장 진입이 용이한 장르라는 점에 있을 것이

다. 문화적 차이나 지역적 특수성에 얽매이지 않는 보편성이 낯설음에서 오는 이질감을 쉽게 없애고 세계의 다양한 독자층을 흡수할 수 있었으리라. 가나출판사의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토머스 불핀치)나 뜨인돌 출판사의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박경수 외)는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주제와 내용을 다룬 도서 콘텐츠가 해외 출판시장의 높은 문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는지에 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
그렇다면, 국적이 모호한 혹은 국적을 알 수 없는 보편성이야말로 저작권수출 활성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일까? 세계 출판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픽션 부분에서 라가치 상을 수상한 웅진닷컴의 《팔죽할멈과 호랑이》(조호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고유의 특수성을 살린 작품이 해외 출판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수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2년 1월 미국 도서관협회로부터 뉴베리상을 수상한 한인 2세 동화작가 린다 수박의 《사금파리 한 조각 A Single Shard》 또한 비슷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조급한 애국심으로 선불리 ‘한국적인 것이

●
곧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구호에 유혹되는 말자. 여기에서의 특수성은 보편성을 담보로 하는, 즉 특수성의 보편성을 일깨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편과 특수 사이에서의 줄타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의식, 역사의식을 보편적 주제로 녹여내는 작업이야말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해외 도서에 대한 국내도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키우는 일일 것이다.

●
아동도서의 저작권수출이 활발해지는 것은 도서 콘텐츠의 세계화 과정 이외에도 아동도서를 기획하는 출판사들의 오랜 노력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최초 기획단계에서부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둔 출판전략은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한 다른 도서의 저작권수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까지 일으키고 있다. 길벗어린이의 《강아지똥》(권정생)은 저작권수출과 같은 해외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출판 기획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낸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길벗어린이는 미국과 일본에서 《강아지똥》의 삽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사의 여러 도서판권을 수출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강아지똥》을 수입해 좋은 성과를 거둔 일본의 해



《넉 점 반》(장비) 중에서
이영경 그림

이본사는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의 저작권을 연이어 수입하기도 하였다.

●
아동도서의 기획력은 대형 기획서에 대한 출판사들의 투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계절이 총 12권으로 기획한 '한국생활사박물관' 시리즈물이다. 현재 《선사생활관》《고조선생활관》《고구려생활관》《백제생활관》《신라생활관》《말해·가야생활관》《고려생활관》《조선생활관》까지 총 10권이 출판된 이 기획서는 독자들이 책 속의 박물관을 '찾아가' 한국의 각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구성력을 보여준다. 비록 저작권수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출판계가 이런 대형 기획서까지 눈을 돌렸다는 사실은 아동도서의 저작권수출에 대한 전망을 한층 밝게 해준다.

●
아동출판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야만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어려움 때문에 예상되는 수익에도 불구하고 신생 출판사가 뛰어들기에는 부담스러운 분야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기획력만 있다면 오

히려 해외시장 진입이 쉬울 수도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아동물 출판업계의 노력은 저작권 수출이라는 현실적 성과로까지 이어져 아직 세계시장의 문턱조차 제대로 밟지 못한 기타 출판분야에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으로 선정됨으로써 출판문화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한국출판의 세계화를 위한 획기적인 무대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무대를 밟았던 일본은 '일본의 해'를 계기로 자국의 도서 콘텐츠를 해외 출판시장으로 이끌어내는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문제

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어 세계로 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출판유통구조의 선진화, 번역의 활성화,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종합적인 출판진흥책의 필요성, 저작권 수출입에 관한 종합적 보고서의 필요성 등 한국출판의 세계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상황은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제 기회도 생겼고 세계화를 탐색하여 성공의 열매를 맛본 경험도 얻었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 우리의 기회와 경험을 아깝게 날려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